

무연고 중증장애인 활동가 동료 배웅 속 영면

고(故) 박영길씨 장애인장

몸담던 광주장차연 등 장례위원회 구성
영락공원 안장 전 추모 문화제도 엄수
“마지막 인사 위한 공공 책임 강화해야”

연고자가 없어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날 뻔했던 중증장애인이 살아 생전 함께했던 장애인 단체와 활동가의 배웅 속에 영면했다.

7일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가’로 살던 뇌병변 장애인 박영길씨가 지난 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6세.

1971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박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인 1989년 국제재활원에 입소해 25년 간 시설에서 보내다 2014년 퇴소했다.



광주 지역 장애인 활동가 70여명 등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가 마련한 고(故) 박영길씨의 빈소.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이후 한마음센터 체험홈에 입소한 박씨는 2016년부터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자립을 이뤄냈고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다.

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 활동가로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기본권 보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박씨는 평소 앓던 지병 악화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연고자가 없어 빈소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광주 지역 장애인 활동가 70여명은 ‘고(故) 박영길 장례위원회’를 구성했고, 박씨에

대한 장례를 ‘장애인장’으로 치렀다. 광주 장애계가 무연고 장애인을 위한 상주를 자처한 것은 지난 2024년 1월 고(故) 정현영씨 이후 두 번째다.

박씨의 빈소는 천지장례식장의 협조를 얻어 마련됐고, 6일 오전 7시 광주 영락공원에 안장되기 전에는 추모 문화제도 엄수됐다.

박영길 장례위원회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뿐만 아니라 삶을 마감할 때도 존엄한 권리가 있다”면서 “언제까지 무연고 장애인의 죽음을 민간 단체의 헌신에 의존할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 장이 관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직접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실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무연고자가 지자체와 공공의 책임 아래 존엄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형우기자

오은하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산업위생관리기술사’ 합격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현지 과정이 전국에서 2명만 최종 합격한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시험 관문을 뚫었다.

7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에 따르면 최근 오은하(사진) 산업폐수과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제138회 기술사 시험에서 산업위생관리기술사에 합격했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시험은 전국 최종 합격자가 2명에 그칠 정도로 합격 문턱이 높았다.

오 과장은 2021년 대기환경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5년 만에 또 하나의 기술사 자격을 추가하며 ‘기술사 2관왕’ 영예를 안았다.

기술사는 해당 분야 고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이다.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을 평가·관리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전문기술을 다루는 자격이다.

오 과장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산업폐수 분야 시험·검사와 분석 업무를 맡아 도민 건강 보호와 수질 보전에 힘쓰고 있다. 업무와 병행해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활용,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은하 과장은 “현장에서 축적한 시험·검사 경험에 산업위생 전문성을 더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지속 가능한 청정 전남을 만드는 데 작은 밑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사)코코넛, 감비아 초등생 방과후 수업 지원

(사)코코넛 감비아지부는 최근 감비아비질로 초등학교에서 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삼성꿈장학재단의 국외지원사업에 선정된 글로벌 교육사업 ‘감비아 스마일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코코넛과 삼성꿈장학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감비아 현지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7개월째 방과후 영어와 수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코코넛 감비아지부와 비질로초등학교는 MOU협약을 맺고 구강위생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광주FC, 우산약국, 손현우 자연보호광주시 수석부회장 등이 후원에 참여했다.

특히 광주FC는 유니폼 70벌을 후원해 학생들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등교하게 됐다. 관계자들은 유니폼이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존감, 학습 의욕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사)코코넛한국본부는 광주시의 법인 인가를 받아 서아프리카 16개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권인성교육, 구호, 재능지원, 환경개선 등 다양한 국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희중기자



장흥군, ‘세계 환경의날’ 환경보호 캠페인 성료

장흥군은 “최근 ‘세계 환경의날(6월5일)’을 맞아 탐진강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일원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기후행동, 교육에서 실천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장흥군 환경관리과 직원과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다화용 폼과 장바구니, 개인 컵 사용 등 일상에서 누구

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 수칙을 안내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독려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순천신협, 왕조1동 위기가구에 성금 전달

순천신협 사회공헌재단은 “최근 ‘은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의 일환으로 순천시 왕조동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한 지원 대상은 총 3가구로, 중증 암 진단을 받고 막대한 항암 치료비와 생활고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이 포함돼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구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지원 대상 가정 모두가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순천=곽동현기자



광주교도소, 현충일 기념 광주공원 현충탑 참배

광주교도소는 “최근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6월8일)을 맞아 광주공원 내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박경선 광주교도소장과 부소장, 각 부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현충탑과 위패봉안소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다.

박경선 광주교도소장은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끼고, 숭고한 희생 없이는 우리의 평화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교정공무원으로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전했다. /인재영기자

담양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담양군은 지난 6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담양 평화예술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 취명에 맞춰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추모 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게 치러졌다.

특히 행사에서는 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다시 부르는 영웅’ 롤콜(Roll Call)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



령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해양경찰정비창, 현충일 맞아 순국선열 추모

해양경찰정비창은 “안교진 창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목포 현충공원 현충탑을 찾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을 올리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넋을 위로했다.

또한 조국 수호의 고귀한 뜻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다시 한번 굳게 다졌다.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



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본받아 국민의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무안 해제면 복지기동대 화재 피해 주택 복구 지원

무안군 해제면은 “최근 지역 내 화재 피해 가구를 찾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합동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복지기동대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해제면 복지기동대를 비롯해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15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중장비를 투입해 주택 내외부에 방치된 무거운 폐기물을 신속히 치우고, 불탄 가재 도구와 화재 잔해물을 말끔히 정리했다.

김윤택 해제면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발 벗고 나서준 모든 봉사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살피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인사

광주경찰청

◇총경 전보

- ▲홍보담당관 임진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대원 ▲경비과장 박흥원 ▲수사과장 주정재 ▲형사과장 국승인 ▲광역범죄수사대장 양수근 ▲범죄예방대응과장 서현우 ▲범죄예방계장 김석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류관승 ▲112치안종합상황팀장 한승일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서명준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이광열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청소년보호계장 이만석 ▲자치경찰위원회 박준현 ▲동부서장 배승관 ▲서부서장 전병현 ▲남부서장 윤주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종열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차복영 ▲치안지도관 최현

전남경찰청

◇총경 전보

- ▲홍보담당관 이광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중득 ▲경비과장 이재성 ▲형사과장 김중호 ▲범죄예방계장 장현필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박병준 ▲여성청소년과장 박상훈 ▲교통과장 문병조 ▲북포서장 장명분 ▲순천서장 박송희 ▲나주서장 이원일 ▲함평서장 강기현 ▲곡성서장 한민